

농장현장 보다는 기업화된 연관 산업체 선호

□ 취재/이유혁 기자

국 내 농축산업은 수입자유화의 일정에 따라 모든 품목이 전면 개방된 상태나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구조적인 개선점을 찾아 최단 시일내에 정비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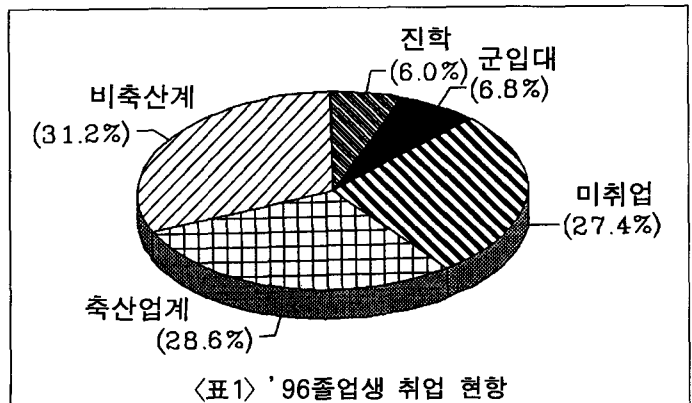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구조개선에 투입될 전문 인력의 확보가 뒷 받침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년에 축산대학 졸업생의 취업동향을 분석하여 양계업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를 분석해 보았다.

현재 여러 양계농장에서 특히 전문 인력 수급이 안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축산대학 졸업생의 취업동향

을 분석키 위해 전국 20개 대학중 14개 대학의 축산학과 졸업생(4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2월 29일 기준).

1. 졸업자수와 취업자수

조사결과 14개 학교에서 1개교 평균 35.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전문 인력이 배출되면서도 취업율은 72.64%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나머지 26.36%는 말그대로 고학력 실업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에 조사한 학교중에서 지방에 있는 사립 대학에서 더욱 뚜렷하게 미취업율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취업자중에는 군입대자, 유학, 대학원 진학, 편입학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2.88%에 이르고 있다.

2. 비 축산업계 취업 동향

비축산계로 취업한 사람은 전체의 38.03%로 나타났는데 군입대자 6.84%도 포함되어된 수치이다. 30%가 넘는 학생들이 축산학을 전공한 뒤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50%정도는 학습지 회사 또는 학원 강사 등에 진출하고, 다음으로는 전산업계로도 진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컴퓨터 산업이 많이 발달하여 축산을 전공하면서 병행하여 컴퓨터에

대한 별도의 공부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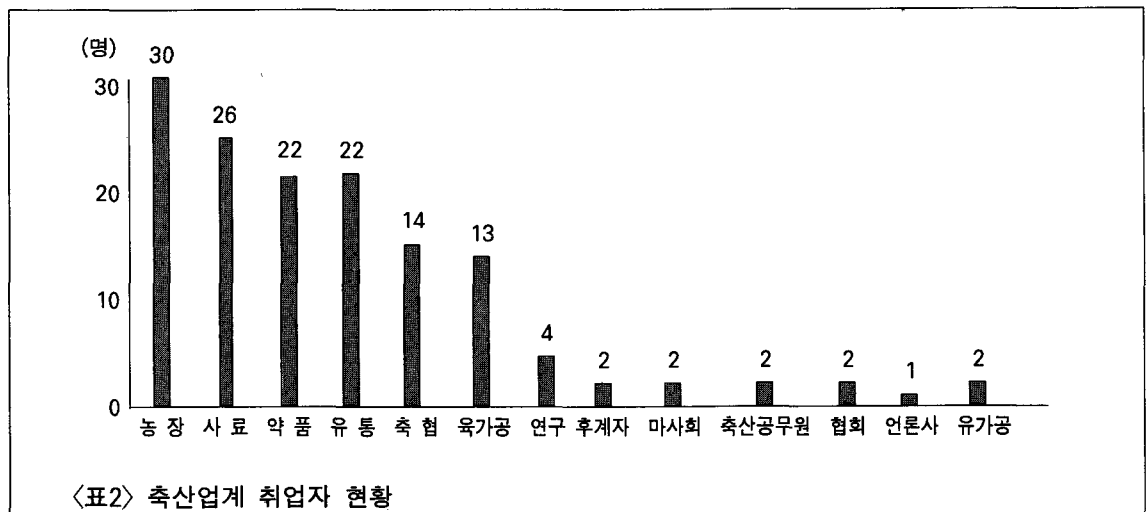
다음은 행정직공무원이 2명, 그외 제조업으로 1명, 건설업계로 1명이 취업하였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기업을 물려 받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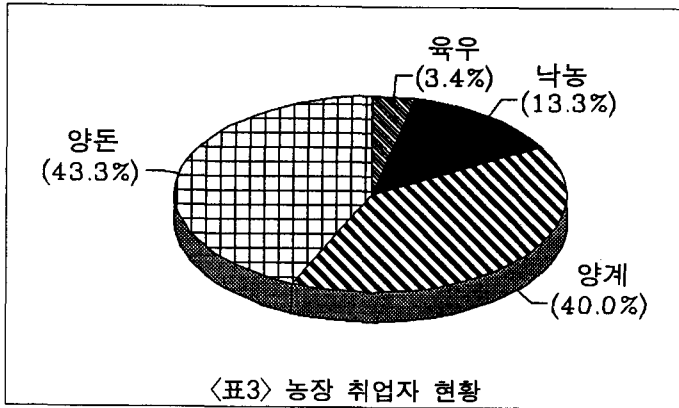
3. 축산업계 취업자 동향

축산업계로 취업한 인원은 전체의 28.57%였는데 이중 농장, 즉 1차산업에 뛰어든 사람은 30명으로 집계되었고 다음은 사료회사 26명, 약품 22명, 유통업계 22명이었고 생산자단체(조합) 14명, 육가공회사 13명, 종축장, 원 또는 기타 연구소로 4명, 협회, 영농후계자, 마사회, 축산직공무원 육가공회사로 각 2명, 축산언론사로 1명이 취업했다.

농장으로 취업한 사람은 30명이나 이것을 양계, 양돈, 낙농, 육우로 분류한다면 취업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사료, 약품회사로 취업한 사람의 근무 분야는





주로 마케팅 쪽이다.

조사 결과 축산물의 유통분야에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통부문의 대부분은 백화점에 소속되어 생산물 판매의 유통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극히 일부는 축산물과 관련된 무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4. 농장 취업자 동향

농장으로 취업한 졸업생 중에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 하는 곳은 양돈장이다. 양돈장을 더 세분해 보면 자영이 50% 이상이고, 그외는 기존의 양돈농장으로 취업을 한 경우다. 양돈장중에서도 취업자의 절반이 종돈장을 선택하였다.

양계업으로 취업한 졸업생은 12명이었는데 거의가 종계장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일부 자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가업을 이어 받은 경우였다.

그밖에 낙농에 4명, 육우에 1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전체 축산대학 졸업자중 우선 취업율이 낮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자 중에서도 축산업의 근본이 되는 농장 취업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더욱 생산성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농장으로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위치상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농촌으로의 정착을 기피하는 것이 기본적이라 할 수 있고, 다음은 농장 근무는 단순작업, 즉 분뇨 제거나 산물수거로 인식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농장들이 전문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취업자의 상당수가 외형이 큰 사료회사나 약품, 백화점 등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대다수의 농장들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시설 자동화를 한 상태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농장주들도 단순 노무자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취급하거나 급여수준에서도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양계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